

글로벌 디지털 핵심인재 양성

고위험의료기관 종사자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작

전주시, 디지털 특성화 교육·창의인재 양성 교육 통해 총 2600명

전주시가 디지털뉴딜 시대를 선도할 글로벌 디지털 핵심인재 2,600명을 양성한다.

시는 올해 J-디지털 교육벨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AI(인공지능), 블록체인, 실감콘텐츠 분야 디지털 특성화 교육과 학생 및 재직자들을 대상으로 창의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을 한다고 8일 밝혔다. 디지털 특성화 교육으로 1,100명, 창의인재 양성 교육으로 1,500명 등 총 2,600명의 디지털 핵심인력을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디지털 특성화 교육의 경우 ▲AI, 블록체인 분야 전문가를 양성하는 ICT 이노베이션스퀘어 교육 ▲글로벌 디지털 인재양성 ▲클라우드 컴퓨터 전문인력 양성 ▲SKT 협력 AI 융합형 교육 등이 준비됐다.

ICT 이노베이션스퀘어 교육은 한컴 아카데미의 교육 노하우를 바탕으로 120명의 전문 강사가 참여해 온·오프라인으로 추진된다. 이번 교육은 지난해 교육생들의 건의사항을 반영해 전공자와 비전공자 과정을 별도로 구분함으로써 맞춤형 교육과정으로 개설했으며, 학생과 재직자 등도 참여할

수 있도록 주말 교육도 편성해 총 455명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게 된다.

시는 1기 교육에 120명을 모집할 예정으로, 희망자는 오는 23일까지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교육관리시스템(jedu.jca.or.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글로벌 디지털 인재양성 프로그램은 지난해 지역 ICT 이노베이션스퀘어 조성사업의 권역평가에서 국비 3억3,000만원을 인센티브로 확보해 진행된다. 이 프로그램은 ▲AI 시대 기업 비즈니스 전략 과정 ▲AI 고급 프로젝트 과정 ▲글로벌 AI 자격증 과정 등의 특화교육으로 운영된다.

또 클라우드 활용 확산을 위한 클라우드 전문인력 양성교육과 SKT와 AI 로봇을 활용한 여름방학 캠프 등 특성화된 전문교육도 이어진다.

이와 함께 시는 초·중·고등학생과 대학생, 재직자들의 ICT(정보통신기술) 창의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전북VR·AR제작센터, 전북스마트미디어센터 등에서 창의인재 양성 교육을 실시한다. 창의인재 양성 목표는 1,500명이다.

세부적으로 ▲웨어러블(wearable) 디

바이스, IoT(사물인터넷) 디바이스 교육 ▲초등생 대상 SW코딩교육 ▲효과 음원 구축 음향기술, 녹음기법, 편집기술 교육 ▲1인 미디어 저변확산 교육 ▲3D 프린팅 사용자 교육 ▲모바일 개발자교육 등이 진행된다.

이와 관련 시는 전주역 앞 첫마중길에 위치한 청년창업 이음센터에 ICT 이노베이션스퀘어와 VR·AR제작거점센터, 스마트미디어센터,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IT벤처센터 2층에 ICT 디바이스랩실을 구축하는 등 인프라 조성에 힘쓰고 있다. 아울러 교육생들 대상으로 한 이력관리, 만족도 조사, 강사 평가 등 J-디지털 교육벨리의 모든 교육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도 갖췄다.

전주시 신성장경제국 관계자는 "J-디지털 교육벨리 사업은 인프라와 인재, 최고의 강사진 등 삼박자를 통해 한국형 뉴딜을 선도할 수 있는 최고의 정책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전주시가 글로벌 디지털 인재 양성의 메카로 부상할 수 있도록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12일까지 33개소 5100여명·119 구급대원·역학조사원 등 1차 대응요원 600여명 대상

전주시가 8일 고위험의료기관 종사자와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시작했다.

시는 12일까지 고위험의료기관 33개소에 근무하는 종사자 5,100여 명을 대상으로 1차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한다고 이날 밝혔다.

예방접종은 접종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를 제외하고 병원 자체적으로 이뤄지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놓인다. 단, 전북대학교 병원 직원 중 코로나19 환자 치료 종사자 190명은 화이자 백신을 자체 접종한다. 119 구급대원과 역학조사원, 검사요원, 방역요원, 입국자 이송팀, 재난안전대책본부 직원 등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 600여명도 8일부터 12일까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보건소에서 맞는다.

이와 함께 시는 지난해 26일부터 진행해왔던 65세 미만 요양병원 입소자와 종사자, 노인요양시설·정신요양재활시설 입소자와 종사자에 대해서도 이날 말까지 1차 접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2차 접종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접종 간격에 따라 8주 뒤 시작된다.

김진선 전주시보건소장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백신을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집단면역 형성을 위해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코로나19 예방접종은 2분기에는 65세 이상 시민과 노인재가복지시설 이용자 및 종사자, 3분기에는 만성 질환자와 19~64세 성인, 4분기에는



전주시가 8일 고위험의료기관 종사자와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시작했다.

미접종자와 2차 접종자를 대상으로 접 종이 이어진다. /김윤상 기자

전주정원문화박람회 소품 판매 도시정원 예술가 20인 선정

시로부터 50~200만원 제작비 지원받아 화훼 조형물·정원 조명 등 제작 전시·판매

전주시와 전주정원문화박람회 조직위원회는 올 6월 열리는 전주정원문화박람회에서 정원 소품을 전시·판매할 도시정원 예술가 20인을 선정해 전주정원문화박람회 홈페이지(jicf.kr)에 공고했다고 8일 밝혔다.

최근 3년간 2건 이상의 활동 실적이 있는 전북 거주 예술가로 구성된 도시정원 예술가는 기성품 판매 위주의 기존 정원박람회와 차별화하기 위해 독창적이고 감각적인 정

원 소품을 선보인다는 구상이다.

이들은 시로부터 50만~200만원의 제작비를 지원받아 화훼 조형물과 정원 조명 등, 식물 이음표, 앞치마, 울타리, 화병 등 실용성과 안전성, 활용성, 디자인이 가미된 정원소품을 제작해 전시·판매하게 된다.

또 정원소품들은 텀블벅 플랫폼(tumbbug.com)에 개설된 펀딩도 진행된다.

이에 앞서 시는 시민과 초록정원사를 대상으로 정원 소품 설문조사

를 실시해 제작 희망 소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전주시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 관계자는 "박람회 기간에 트렌드에 맞는 독창적이고 감각적인 정원 소품을 시민과 소비자에게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21 꽃심, 전주정원문화박람회'는 오는 6월 2일부터 6일까지 전주종합경기장, 노송동 일원, 전주시 양묘장 등 3개 구역에서 개최된다.

/김윤상 기자

'반값생활비 도시 전주' 실현 위한 공유경제 시범사업 공모

전주시가 공간과 물건, 재능, 지식 등을 공유해 시민들의 생활비를 반값으로 줄이는 공유경제 사업을 지원한다.

시는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공유를 통해 사회·경제·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자원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공유경제 시범사업에 참여할 법인 또는 단체를 공개모집한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은 공유경제 시범사업은 ▲공간 공유 ▲물건 공유 ▲정보 및 지식 공유 ▲재능 나눔·기부 공유 등을 통해 주민에게 편익이 돌아갈 수 있는 사업을 지원해 반값생활비 도시로 나아가자는 게 취지다.

일례로 '아중리마을공동체'는 공동체 공유주방에서 청소년과 이주여성, 어르신들을 위한 계층별 요리공유 교실을 운영했고, '문화살롱'은 수공예 분야 작가의 재능 기부를 통해 수공예

마을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신청대상은 공익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단체로, ▲지난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정부 기관이나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경우 ▲사업활동 또는 수혜지역이 전주지역이 아닌 경우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인 경우 ▲사업내용이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회원의 단순 단합이나 친목을 위한 사업 등은 제외된다.

시는 올해 3개 내외의 법인·단체를 선정해 총 1,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선정된 법인·단체는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공유경제 시범사업을 실천하면 된다.

시범사업을 원하는 법인·단체는 전주 홈페이지(www.jonju.go.kr)에서

내려 받은 사업신청서 등을 작성해 전주시청 사회연대지원과(완산구 노송광장로 29, 5층)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사회연대지원과(063-281-2257)로 문의하면 된다.

정상택 전주시 사회연대지원단장은 "공유경제를 기반으로 공간·물건·재능·지식 등 유·무형 자원을 함께 나누고 활용해 반값생활비 도시 전주를 실현시켜 나갈 것"이라며 "이 사업이 사회적경제를 지향하는 전주의 미래 비전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공유경제 사업을 통해 ▲공유공방 수공예 교실 및 마을치유 프로그램 ▲간편 간식교실 및 전주다운 공예품 창작 교실 ▲다함께 식탁 등을 추진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노후·파손된 자전거보관대 정비

전주시가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후·파손된 자전거보관대를 정비했다.

시는 지난달부터 지역 내 자전거보관대 211개소를 대상으로 노후화 정도

와 파손 여부, 추가 설치 요청 수요 등을 일제 점검해 22개소의 보관대를 신설·교체했다고 8일 밝혔다.

시는 너무 낡았거나 파손된 15개소의 자전거보관대는 교체를 했고, 자전

거 이용객이 급증한 예코시티KCC스위첸아파트 등 7곳에는 신규 자전거보관대를 설치했다. 이와 함께 시는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이용하는 시민이 증가함에 따라 전북대학교와 전주대학교, 혁신도시, 예코시티 등 자전거보관대 주변에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을 만들기로 했다. /김윤상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시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ivs.or.kr *전자우편 : jivs@hanmail.net